



第16回 發明教室 盛了

6月 8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6月 8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16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發明에 關心을 가진 많…○
- …은 아마추어 發明家들이 參席하여 發明家들의 成功事例를 聽取하고 質議應答…○
- …을 통하여 아이디어開發에 대한 知識을 넓히고 問題點을 討論하는 자리로서…○
-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參席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洪…○
- …戴日 辨理士의 「發明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方法」에 대한 講議에 이어 尹漢哲…○
- …博士(齒科專門醫)와 브리즈제화 金相道사장의 成功事例 發表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주려 紹介한다. ………………○

1點 銀賞 2點 銅賞 3점이 선정됐는데 尹博士는
이중 銀賞을 受賞했다.

자물쇠式 부문틀이

齒科專門醫 尹漢哲博士 發明



齒科專門醫의 尹漢哲博士(47·서울 鐘路구 仁寺洞 156)가 開發한 자물쇠式 부문틀이가 지난해 西獨紐倫베르크에서 열린 國際發明品展示會(獨逸聯邦科學研究開發廳·獨逸特許廳·

〈尹漢哲博士〉 全유럽特許廳 공동후원 11월 7~11일 開催)에서 영예의 銀賞을 획득했다. 發明品만 취급하는 뉴른베르크 國際發明品展示會는 西獨뿐 아니라 世界的으로 알아주는 권위 있는 國際發明品콘테스트로 지난번 展示會엔 30여개국으로부터 2백여 優秀發明品이 出品, 金賞

72年부터 研究에 沒頭

尹博士가 자물쇠式 부문틀이의 研究에 没頭하기는 72년. 현대 齒科醫學이 다른 醫學分野와 같이 많은 發展을 거듭해왔지만 유독 부문틀이(局部義齒) 분야만이 큰 進展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데 좌안했다.

현재 부문틀이를 할 때 가장 널리 使用하는 방법은 고리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고리식은 끼고 뺄 때 이를 지탱해주는 기둥이(支臺齒)에 많은 부담을 주고 고리자체가 부러질 염려가 크다. 또 고리때문에 입안에 이물감을 주며 고리가 얹혀있는 부위에 음식물이 끼어들어 虫齒를 유발케 한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이가 앞쪽 일 경우 이곳에 고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外觀上으로도 보기가 흥하다.

이같은 不便을 덜기위해 그동안 수많은 고리 없는 부분틀이가 선을 보였으나 나름대로의 단점을 갖고있어 임상적으로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既存단점 거의 補完

尹博士는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이같은 단점을 거의 완벽하게 補完한 고리없는 자물쇠식 부분틀이를 10여년의 研究끝에 開發하기에 이른 것.

尹博士가 開發한 부분틀이는 ① 끼고 빼때 기둥이에 주는 부담이 현재 開發된 어떤이보다 적고 ② 자물쇠식 이어서 썹을때 동요가 없으며 ③ 끼고 빼기가 簡便하다 ④ 또 製作과정이 간편하고 고장이 나도 손쉽게 處理할 수 있으며 ⑤ 누구에게나 시술할 수 있다 ⑥ 또한 大量生產이 가능해 보다 값싸게 보급할 수 있으며 ⑦ 오래 使用해도 동요되거나 빠지는 일이없고 고장률이 적다는 등 여러 利點을 갖고 있다.

美·日 特許도 획득

尹博士는 현재 이 자물쇠식 부분틀이에 대한 2개의 國內發明特許(第5708號와 第15894號)와 1개의 實用新案(第24549號), 그리고 美國特許(第4302187號)와 日本特許(第1143856號)를 이미 획득했고 다시 이를 개량, 日本(第57-113813號)과 獨逸(제932242190號)에 特許를 出願해 놓고 있다. ♦

異色發明…숨쉬는 구두

브리즈製靴 金相道사장 發明



〈金相道사장〉

끊임없는 研究와 努力으로 製靴業界에 클로즈업된 發明인이 있어서 關心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일명 숨쉬는 구두(Breeze)를 開發한 브리즈製靴 金相道사장(40).

5年 研究의 結實

『5년의 研究期間을 거쳐 發明에 이르렀지요.』
공학도 출신답게 차분히 말문을 여는 金사장은 환기 및 완충을 겸한 구두를 開發, 國內市場에 선보였다.

발파 구두가 人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때 이 획기적 구두의 開發은 우선 消費者保護라는 측면에서 꽤이나 다행스런 일이다.

外部로부터 空氣가 流通할 수 있는 1천여 個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언제나 신선한 空氣를 提供해 주는 한편 무좀 및 악취를 사전 豫防할 수 있고 환기 및 완충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브리즈 구두의 특징. 金사장은 그동안 製靴業界的問題點과 국가적인 次元에서 市場開拓이 필요함을 직시 1차로 既存百貨店을 통해 市販할 計劃이다.

특히 서울 경부고속터미널 하차장 대합실에서 열린 바 있는 本會 主催 發明特許品流通販賣展示會에 出品(3月 15일~6月 14일)되어 브리즈製靴는 消費者들의 絶對的인 反應과 關心을 불러 일으켰다.

모든企劃과 아이디어 發想을 본인 스스로가 研究着案하고 있다. 金사장은 製靴業界的 후발 메이커로서 고충은 많지만 이분야에서 業界發展을 위해 努力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점진적으로 캐주얼이나 스포츠靴 등으로 研究開發중이며 國際的인 製靴메이커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國內外 特許 6件 획득

“브리즈”란 우리말로 산들바람이란 뜻. 5가지 제품의特性은 악취, 무좀豫防, 착용감이 가볍고 경쾌하며 발이 편안하고, 모양이 變形되지 않고,壽命이 길다는 것. 國내 實用新案(第23670號)과 美國特許(06/456427)등 6件의 特許를 획득한 發明品이다. 發明인인 金사장은 EPOXY RESIN MOALD의 開發이 가장 어려웠다고 지적, 앞으로 技術蓄積의 強化로 製品의 高級化를 유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